늘 똑같은 날. 반복되는 요일. 오늘은 공강이 있는 날인 나는 다음 수업까지 시간이 남아서 여유롭게 자취방으로 가고있다.

...

**다음 수업까지 얼마나 남았더라?**

매 공강 때마다 늘 뭐 할지 고민하던 나는 유난히 오늘은 감이 안잡혀 많은 생각을 가진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.

**꽤 여유가 있는 거 같은데 집에 도착하면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려나...**

여전히 뭐 할지 고민하던 도중에 나는 집에 도착했다.

**드디어 도착 했네 지금 몇 시지?**(핸드폰 UI? 넣으면 좋을 듯)

**(핸드폰을 보며) 좀 많이 남았네... 느긋하게 커피 한 잔 내릴까?**

여유롭게 공강을 즐기고 있던 나는 커피를 내리면서 지난 번 술집에서 일어난 그녀가 뇌리에 스쳐지나갔다.

**(의아한 표정으로)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세탁비 준다는 사람은 언제쯤 보내주려나? 어휴.. 역시 별 기대 안 했....**

(띠링♩♪)

별 못마땅해 하던 와중에 갑자기 나의 핸드폰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다.

**이 시간대에 문자 올 사람이 있었던가? 보나마나 스팸문자겠지.**

혹시 (주인공) 번호 맞나요?

생각하고 있던 사람에게 문자가 온 나는 순간 벙쪄 있었다. 사실 세탁비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 같다.

**네 맞습니다. 혹시 누구세요?**

와... 설마 그 사이에 제가 누군지 잊으신거에요? 저 지구하예요. 저번에 술집에서 빚진 일 때문 에요!   
드디어 돈이 생겨서 늦게 연락하게 됐네요. 늦게 드려서 죄송해요. ㅠㅅㅠ(대충 절하는 사진)

입금 알림 소리와 함께 그녀가 보내준 사진을 보자마자 지난번 그 여자가 맞는지 확인했다.

그녀가 맞았고, 그녀는 길거리에서 자기가 절 한 사진을 찍어 올렸다.

**풉!  
이 사람 왜 길거리에서 절 한거야? 진짜 언제 봐도 황당한 사람이네.   
근데 이 배경 뭔가 익숙한데... 어디였더라..?**

나는 한창 사진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어디였는지 상기하고있었다.

**...**

**여긴...? 우리학교 근처잖아?!**

**저기 혹시 여기 어디에서 찍으신거죠?**

여기 oo대학교 근처에서 찍었어요! 왜요? 잘 나왔어요? (이모티콘)

**아니.. 왜 거기 계세요? 어디 뭐 지나치신거에요?**

아니요? 학교 등교하면서 찍은거에요!

저 여기 학교 다니거든요!

**엥? 저랑 같은 학교 다니시는거였어요?**

**나 여기 학교 n+1학번인데.**

헐!!!! 진짜요?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대? 와... 세상 진짜 좁다.

핸드폰 화면 밖으로 그녀의 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….

**혹시 그쪽도 엠티 가시는 거에요? 저희는 이번에 이 날에 간다고 하던데.**

그러면 엠티 저희 학년보다 일찍 가시는거에요? 완전 부럽다....

경우도 이런 경우가 없다 싶은 나는 커피 내렸던 것도 기억 못 할 정도로 엄청 놀랐다. 어느새 그 진한 커피 향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.